

어떻게 생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
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는 자기의 인생을 누구보다
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
는 이를 보면서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좋다!"

결론

바울의 롬 8장의 사랑의 찬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품고 계시며, 얼마나 사랑하
시고, 그렇기에 때로는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지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길 축복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하는 멋진
모습을 스스로 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1. 우리는 어떻게 나를 좋아하고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3쪽 상단)
2.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도 나눠 주세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 2023년 교회표어 >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행 2:46-47)

생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

- 사도신경

- 찬 송 304장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 기 도

- 성경본문 로마서 8:31~35, 39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
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
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
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
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삶 나누기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살아가시나요?

바울은 사랑 앞에서 논리를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오는 동안, 많은 교리들을 치열하게 논증했습니다(하나님의 심판, 율법,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등). 하지만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대목에서 갑자기 논증을 놓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논증이나 변증이나 방어나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포할 일이요, 경험할 일입니다. 그는 네 번을 반복해서 독자에게 묻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31v)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세상에 의해 삼켜지지 않습니다.

둘째,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33v)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할 때, 억울한 일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속이 썩어가는 것 같은 아픔도 삼켜내면서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34v)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별 것 아냐. 네 인생은 보잘 것 없어.”하며 내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정죄하며 참소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35v) 끊을 수 없다는 반어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in all these things)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37v). 곤고, 박해, 고통이던 ‘그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여행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39v)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대확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썼다면, 바울의 상황은 지금 편히 먹고 자며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찬양할만한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제 스스로 사슬에 묶여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 환난과 결박을 받아야 할 순간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행 20:22-23)

이렇게 임박한 환난 한 복판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그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자신은 충분하다! 그 사랑으로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일 것입니다.

지난 3차례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불같고, 견고한지...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찬양한 것입니다.